

서울 친환경 식재료 모니터링단, 나주 방문

공공급식 납품업체·로컬푸드 출하농가 견학 등 1박 2일 일정 소화 신선·안전한 식재료 공급 통한 도-농 상생...상호 신뢰구축 도모



서울 금천구의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생산지 모니터링 방문단'이 최근 산포면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최근 서울 금천구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생산지 모니터링 방문단'을 맞아, 공공급식 납품업체, 로컬푸드 출하농가 방문 등 1박 2일 견학 일정을 소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 금천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을 체결,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1박 2일 방문단은 금천구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로 구성됐다.

첫날 일정으로 방문단은 공공급식 납품업체인 '나물사랑' (노안면 소재)을 찾아 시설 위생 및 납품 관리 상태,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후, 남평읍 딸기농가에 들러, 친환경 농산물 시식 체험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산포면 소재 호남권친환경물류센터에서 행정, 로컬푸드센터, 급식공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

고, 이후 왕곡면 덕실마을 두부체험을 끝으로 1박 2일 방문 일정을 마쳤다.

금천구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 식탁에 오르는 나주 농산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식재료의 생산, 전처리 과정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먹거리의 신뢰성을 갖게 됐다."는 방문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도-농간 상생발전이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울 금천구 소재 150여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385개 품목 식재료를 공급, 성장기 아동을 위한 우수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함평천 1천340㎡ 부지에 꽃길 조성
흰색 유채 5만주 등 21만주 꽃 식재

함평나비대축제의 옛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함평군은 최근 제1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시작했던 함평천을 꽃길로 조성했다.

함평천은 지난 1999년부터 '2008 세계나비·군충엑스포'가 열리기 직전인 2007년까지 총 9년 간 나비축제가 열렸던 곳이다.

군은 나비축제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이곳 1천340㎡ 부지에 보리 5만주, 흰색 유채 5만주, 흰색무꽃 10만주 등 총 21만주의 꽃을 식재했다.

특히 농업경영인회 등 지역 6개 농업인단체 350여 명이 파종부터 식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김향희 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장은 "꽃길을 조성할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밝게 웃고 즐길 것을 생각하며 보람차게 만들었다"며, "이번 꽃길조성을 계기로 이곳 함평천변이 다시 한 번 함평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함평천 꽃길은 향후 우리 센터를 통해 집중 관리될 예정"이라며 "올 여름에는 수국과 좁은 잎 해바라기가,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델리시스, 페니세툼 등이 식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하나 하나 조각보로 아이들의 꿈 있다”

담양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미술전시 참여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들이 청소년·어린이 행사인 '조각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꿈 2019 다르기' 전시회에 참가해 준비한 작품을 선보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전시회를 갖는 '다르기'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조각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꿈 2019 다르기' 청소년·어린이 행사는 지난 5월 3~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미술작품 전시와 함께 티

기사제보 2580@jndomin.kr

셔츠에도 작품사진을 넣어 야외광장에 전시해 선보이는 '꿈나무 빨래'와 '조각보 잇기' 전시로 채워졌다.

꿈드림 청소년들은 올해 2월부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미술 선생님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했으며, 제작한 미술작품은 광주 대촌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작품과 함께 조각보로 이어 전시됐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담긴 티셔츠는 '꿈나무 빨래'라는 이름으로 전시됐는데 이 티셔츠는 전시 이후 캄보디아 '돈보스코 품체레 스쿨' 어린이들에게 기증돼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평소 스마트교실 운영, 취업패키지 연계, 멘토 프로그램 등으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자기계발, 자격증 취득, 자립지원 등 학업 포기 혹은 중단, 미취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lbest1@

영광, 아동친화형 야외 물놀이장 2개소 개장

가마미 해수욕장 야외물놀이장·물무산 행복숲 유아숲체험원 숲속물놀이장



영광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체험원 숲속물놀이장.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아동친화형 야외 물놀이장 2개소를 만들어 올 여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야외 물놀이장은 2개소다.

이 중 가마미 해수욕장 야외물놀이장은

유료이며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체험원 숲속물놀이장은 무료이다.

군은 올해 물놀이장 2개소를 추가로 만들어 운영한다. 영광읍 한복판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에 만들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11억 원을 투입해 6월 중 완공한

다. 이곳 물놀이장은 2,843㎡ 면적에 바닥수와 조합물놀이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영광읍 소재 영광향교 근처 계곡에 2018년 시공한 사방댐을 이용한 야외 물놀이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면적 204㎡에 수심 80cm인 이곳 물놀이장은 근처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의 수심 50cm 보다 30cm 깊게 만들어 차별화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두 곳 물놀이장은 주차장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올해 야외물놀이장 2개소를 완공하면 영광군은 실내수영장, 해수욕장 물놀이장, 야외 물놀이장, 숲속 물놀이장 등 다양한 유형의 물놀이 시설을 갖추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깊은 계곡이 없어 여름철 야외 물놀이를 고민하는 학부모와 어린이를 위해 물놀이장을 조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장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공모사업비 '1억원' 확보

장흥군 특화시책인 '찾고, 이어주고, 감싸주는 협력복지 모델'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장흥군에서는 본 공모에 앞서 공무원, 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Help-day를 운영하고 있었다. Help-day를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는 긴급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연계 및 각종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사각지대로 발굴·지원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규모 집수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민간지원 연계만으로는 많은 대상자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남도민일보